

# 협회 창립 10주년에 즈음한 感舊之懷

1993년 10월 7일 힐튼호텔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협회를 발족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나 소감에 대한 원고를 부탁받고 보니 그 감회가 무척 깊음을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

당시 미국에서 에이즈 치료분야를 연구하고 돌아온 후 국내에 에이즈 예방운동을 전담하는 민간단체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도 최강원 현 부회장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협회 창립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수차례 방문하여 어렵게 준비위원장으로 모시고 김모임 현 회장 등 각계 대표 21명을 발기인으로 선정하여 창립을 준비하였다. 창립총회에서 '에이즈의 예방 및 퇴치와 감염자 및 그 가족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나아가서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관을 채택하면서 초대 회장에 강영훈 총재를 모셨고, 이어서 열린 창립 대회에서 당시 보건사회부 송정숙 장관의 격려사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이던 한상태 박사의 특별강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 감염자가 그리 많지 않아 에이즈가 다른 나라의 일로만 여겨지고, 심지어는 에이즈 예방운동을 위한 민간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감염자 수가 2,300명을 넘어서고 동남아시아에서와 같은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당시 협회 창립은 미래를 내다 본 시의 적절한 판단이었다 생각한다.

창립 당시 20평도 채 안되는 사무실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던 일, 다음 달에 지급할 직원들 월급이 없어 이리저리 부탁하던 일, 창립 후 이년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6천만원 정도의 정부 보조를 받고서 기뻐했던 일 등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러나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10년이란 세월 동안 어떠한 민간단체도 이루지 못한 빠른 발전과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부한다.

창립 당시 협회 사무실 모습  
최대 감염내과 교수

이제는 본부에만 10여명의 직원이 50명이 넘는 사무실에서 매년 10억원 이상의 정부 후원금을 받으면서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건설한 민간단체로 성장하였다.

모든 지방에는 지부가 조직되어 활성화되어 있고, 전국적인 컴퓨터 운영은 나름대로 궤도에 올라 있으며, 협회 지인 '레드 리본'의 오랜 역사는 빼 놓을 수 없는 협회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간 협회에 관계하였던 모든 임직원, 자원봉사자 및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의 결과라 생각하며, 특히 역대 강영훈 회장과 정광모 회장, 그리고 김모임 현 회장의 노고가 눈부신 발전의 구심점이 되었다 생각한다.

또한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다른 민간단체들을 통해 자극 받으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음을 무척 다행스런 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특정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개성있는 사업을 펼치는 많은 민간단체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이제 에이즈는 선진국의 질병이 아닌 제3세계의 에이즈로 이미 변모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가 에이즈 감염의 가장 중심지역이 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과거의 발전과 업적에 결코 안주하지 않고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창립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 감염자가 많지 않아 에이즈는 다른 나라의 일로만 여겨졌고, 심지어는 에이즈 예방운동을 위한 민간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감염자 수가 2,300명을 넘어서고 동남아시아에서와 같은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당시 협회 창립은 미래를 내다 본 시의 적절한 판단이었다



초창기 에이즈 캠페인 부스



초창기 에이즈 캠페인 가우행전 모습



93년 에이즈협회 창립대회 모습